

목양칼럼

제가 빨리 먹는 이유

저는 밥을 빨리 먹습니다. 밥만 빨리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모든게 빠릅니다.

저 스스로 많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것을 빠르게 하려는지 말입니다.

모든 빠름에는 심포의 미학이 없어 볼품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빠름, 특별히 빨리 먹는 모습이 보여주는

수많은 볼품 없음 가운데도 두 가지 고상한(?) 의미가 있음은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미래로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미래가 항상 궁급합니다.

“이 시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물음이 제 안에 깊숙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주님을 위해 죽고,

교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교인들을 위해 죽으라는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도 제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래로 빨리 가려고 빨리 먹는다는 것은

어이없는 논리일 수 있지만,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별로 그렇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의 촉박한 시간 앞에,

빨리 밥을 먹고 주님과 교인을 위해 일할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지 말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 Son/RM (917)940-0596 천위지/CM (347)965-0343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전도사	교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소유영/행정 (917)318-7030 최진식/ (646)887-7419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차평화/고등부.EEIP(703)819-8785 손요한/중국어교육부 (646)789-1118 이오스틴/인턴 전진영/인턴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나윤주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PASTOR EVERTUS, REV. YOUNGHOON CHANG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1월 11일
제 44-45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성국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5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함용식 장로 3부 / 차상남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전서 13:8-13	사회자
찬양	CHOIR	찬양과 기도로 소망의 길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83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91 / 1, 3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일예배 (2,4부)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최원일 장로 4부 / 채영주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83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전서 13:8-13	사회자
찬양 CHOIR	감사의 기도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마음이 상한자를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수요 기도 예배

신학교 찬양 축제
오후 8:00 (11/14/18) 사회: 학장 김성국 목사

I. 예배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29	다같이
기도		김정민 학우
성경봉독		김금희 학우

시편 116:1-14

찬양	주께 영광	신학교 합창단
말씀		학감 허윤준 목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I. 찬양

신학교합창단, 중창, 글로리아싱어즈		
헌금 및 찬송	313	다같이
광고		학감 허윤준 목사
찬송	부흥	다같이
축도		뉴욕노회장 문중은 목사

새가족 환영회

3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례 예배

11/18(주) 오후 4:00

추수 감사절 만찬

11/22(목) 오후 6:00

교회소식

11월 감사의 달 - 여호와께 감사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1/14(수) 신학교 찬양 축제	11/17(토)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문답
11/18(주) 성례 예배	11/22(목) 추수감사절 만찬 11/25(주) 추수감사 주일
11/28(수) 축복이흐르는찬양 예배	12/2(주) 선교회 월례회 및 총회 12/5(수) 지도원 성경 공부

알림

- 이번 학기 QBC에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오후 2:15~3:15 교실은 변동없습니다.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안내 1) 기간: 10/14부터 5주간 2) 문의: 각 교구장 3) 장소: * 2부 예배 후(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4) 학습 세례 문답식: 11/17(토) 오후 7:20 교육관 2,3층 (장소: 당일 안내)
- 제 13회 Ainos 정기연주회 안내 1) 일시: 11/17(토) 오후 6:30 2) 장소: 본당
- 추수 감사절 안내 1) 성례예배: 11/18(주) 1,2,3,4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하며 저녁 예배 때 성례식을 합니다. 2)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 11/22(목) 오후 6:00~7:00: 만찬, 오후 7:15: 감사 예배 * 만찬 기증 11/22(목) 추수감사의 밤 터키 만찬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각 교구장 3) 추수감사주일: 11/25(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 11/10(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영아, 유아, 유치부 (다음주: God's Will)
- 가족기념 장학기금 강숙례 권사, 임광순 권사, 임송학 교수

새가족

이채영 (브리스가 2F10) 김성휘 (청장년 2F14, 이흥화 - 청장년)
이원호 (바울 3WCT, 박혜성 - 브리스가) 박정훈 (청년선교 3Y2)

교우소식

출 산 정진웅 교우 (정은정 2Y2) 가정에서 11/7(수) 득녀(라온 Joy) 하였습니다.
완 서 김영복 권사 (4LI1)께서 인터넷 성경쓰기 2회 하였습니다.
병 환 송진수 권사 (3RW)께서 폐렴으로 뉴욕병원 512호실에 입원중입니다.
홍사원 집사 (3RW)께서 뉴욕병원 E087호실에 입원중입니다.
점심제공 담임목사님 가정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금식기도

월 / 최순금 지미령 김선의 김은지
수 / 정매튜 김에은 이혜연
금 / 최순금 고은비 이국향 최재영

주 / 이은규 이근일 이승우
화 / 전지철 민경빈 조상민
목 / 이동훈 함용식 오인수
토 / 김아란 김아람 김유진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출석

1부 예배	310	러시아어 예배	60	영어부	41	중등부	66
2부 예배	403	청년 선교부	87	유아부	28	고등부	56
3부 예배	314	QBC	194	유치부	37	청년 대학부	37
4부 예배	158	새벽 예배	870	중국어 교육부	29	교회 학교 예배	456
영어 예배	152	수요 기도 예배	165	유년부	89	주일 낮 장년 예배	1837
중국어 예배	353	새가족 환영회	20	초등부	73	주일 낮 총계	2293

1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정성호 장로

현신기도	남형욱 장로	채영주 장로	황인섭 장로	정길표 장로
책임권사	최용숙 권사	강옥순 권사	송경순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바울 주일식사: 루디아(다음주: 한나/사라)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제 67 문 : 그러면 말씀과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답 :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하여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14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8:19-24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심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심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심판의 자리에 아무런 죄없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5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8:25-27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한다면 세 번뿐만이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36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8:28-38

빌라도는 갈팡질팡합니다. 유월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며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과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온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다. 그저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할 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신이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 그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을까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그런 삶, 혹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왕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151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8:39-40

무지한 유대인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예수님의 결백은 상관없는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 무지함과 완고함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와 찬양과 눈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15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9:1-7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가지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5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한복음 19:8-16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강요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져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빌라도도 쓸쓸했지만, 우선 당장 위기를 해결했음에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